



보도 일시	배 포 시	배 포 일시	2022. 1. 10.(월)
-------	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세제실 조세분석과	책임자	과장 최영전 (044-215-4120)
		담당자	사무관 정호진 (re2pect@korea.kr)

2021년도 국세수입 실적은 현재 집계 중입니다.

〈보도내용〉

- 2022. 1. 10.(월) 한겨레는 “2021년 회계연도 기준 세수가 애초 정부 계산보다 최대 10조원 더 들어올 전망이다.”, 서울신문은 “작년 초과 세수 20조 넘어가나” 라고 보도

〈기획재정부 입장〉

- 2021년도 국세수입 실적은 현재 집계 중이며,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